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국, 보험산업 고용자수 감소세 지속

- 지난 7월 발표된 미국 노동통계국(U.S. bureau of labor statistics)의 계절조정 데이터에 따르면, 보험산업 고용자수는 7월에만 4,800명이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.
 - 7월 보험산업 고용자수는 226만 명으로 6월 226만 5천 명보다 4,800명이 감소하였으며 감소규모는 6월의 3,100명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.
 - 그러나 비농업 부문 총고용자수는 24만 7천 명이 감소하면서 평균 64만 5천 명이 감소한 작년 11월에서 올 4월까지 보다는 상황이 나아짐.
 - 미국 총고용자수는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7년 12월 이후 670만 명이 감소했으며, 계속해서 증가하던 실업률은 지난 7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로 전월 대비 0.1%p 감소한 9.4%를 기록함.
 - 전년동기대비로 비교했을 때 보험산업 고용자수는 2.8% 감소하였고 비농업부문 총 고용자 수는 4.1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- 계절조정이 감안되지 않은 보험부문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생명보험, 손해보험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고용자수가 감소한 반면, 건강보험과 재보험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고용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- 건강보험 고용자수는 지난해에 비해 2.9% 증가한 46만 2천 명을 나타냈으며, 재보험의 경우 3.2% 증가한 2만 9천명을 기록함.
 - 보험산업 고용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설계사·중개인의 경우 전년대비 2.4% 감소한 65만 6천명을 기록했으며, 손해보험은 2.5% 감소한 47만 9천명을, 생명보험은 2.0% 감소한 34만 7천 명을 나타냄.
 - 그 밖에 TPA(Third Party Administrator)는 4.6% 감소한 12만 5천 명을 나타냈으며, 손해사정인은 무려 11.9% 감소한 4만 7천명을, 권원보험사업자(Title Insurer)는 15.5% 감소한 7만 여명을 나타냄.

(Insurance News Net, 8/7)